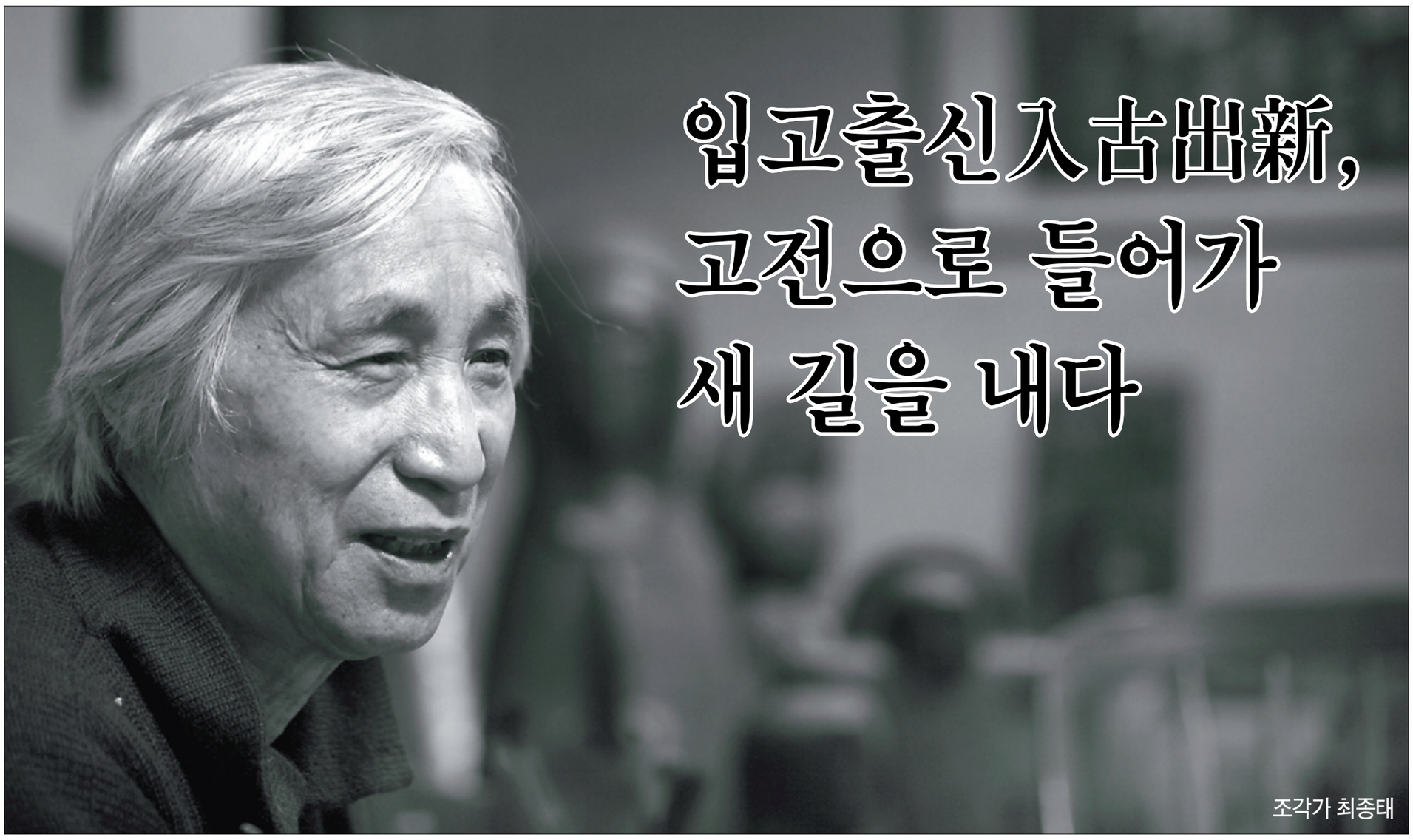

입고출신入古出新, 고전으로 들어가 새 길을 내다

선생의 백발은 고왔다. 눈웃음과 미소역시 그랬다. 일흔을 넘긴 나이지만 드러난 모든 것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세파를 구도의 열정으로 넘었기 때문이리라. 백발,눈웃음,미소들은 선생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나타내주는 것들이었다.

"올해, 추사가 연경(베이징)에 다녀온 지 200년째 되는 해라서 올초에 전시회가 많았는데, 추사가 입어유법入於有法, 출어무법出於無法, 아용아법娥用娥法 이 세 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여?" 반어. 일깨워 주기 위한 물음이다. 연남동 작업실에서 만난 길상사에 관세음보살 석상을 조성한 최종태 선생(79)은 아직도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다. "그 땐 중국이 세계였으니까. 세계미술사를 공부하러 들어가서 이걸 다 졸업을 하고 무법으로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법으로 그린다. 이게 제주도 가서 한 얘기에요. 추사 글씨가 거기서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게 그거에요. '아용아법娥用娥法',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세계미술사를 다 봤는데 이걸 다 소화하고 없어져야 돼. 그런 연후에 내 그림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 이걸 관찰하는 거지. 조금 덜 됐나? 어느 정도 된 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된 사람이 없어요."

조각을 하다 보니. 늘 서양 사람들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청년 최종태는 당당히 내발로 서기 위해 조선미술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다. 순전히 혼자 힘으로. 1965년 무렵 어떤 조각을 할 것인가? 고민을 거듭하는 청년 최종태 앞에 반가사유상이 섬광처럼 나타난다. "거기서 작품방향이 딱 섰어요. 아! 나는 이 길로 간다." 법정 스님은 반가사유상에는 거리낌 없는 무애無碍 미가 담겨 있다며, 작품에 깃든 아름다움이 거리낌 없을 때 감동을 주는데, 거기에 작가 혼이 서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어르신들 만남이 늦었을 뿐, 절대 미감으로 일찍부터 통했다.

한국미술사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레 중국을 보게 되고 중국을 보다보니 인도, 파키스탄과 이어지고 그리스와 연결되었다는 최종태 선생은 이집트, 그리스, 중동을 두루 살핀다. "서양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었어요. 본디 야만인데 그리스를 업고서 서양문명이 시작됐지. 실은 그리스도 중동이에요. 그리스가 이성이라면 이집트는 영성이라고 해야지." 그 밖에 에스키모, 멕시코, 아프리카 조각, 남태평양 미술을 두루 섭렵한 선생은 "지금도 내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더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미술대학 나오고 쉰 해가 더 지났는데, 아직도 방황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방황을 하더라도 열어야지 어떻게. 그게 무서워서 닫으면 되나?"

- 떴다 감았다 못하면

71년 불혹 나이에 미술 자취를 더듬어 세계를 돌던 선생은 이집트 미술을 대하곤 눈물바람을 했다. "돌덩어리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집트에요. 그리스는 너무 깎아가지고 생명이 약화됐어요. 설명하면 약해지잖아. 우리나라 불상이 좋은 건 근육, 힘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눈길이 그리 가고 정신이 팔려서 불상이 주는 숭고함이랄까. 철학이고 뭐고가 안 돼요. 내가 처음 그리스 조각을 보면서 '하, 이 사람 힘들겠다.' 싶었어요. 맨날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저기 내 작품. 저 안엔 뜨고 감은 게 다 있어요. 저걸 감았다고 볼 수도, 떴다고 볼 수도 없어요. 부처님 눈 같이 그냥 있는 것이지. 감았다 떴다를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반가사유상 눈을 떠올리지 못해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눈에 눈길이 안간 거죠." 이 어른에겐 조각품도 살아있는 존재다. 김흥도나 신윤복 그림을 봐도 그냥 점을 쿡 찍거나 쿡 눌러서 추슬렀지 세세하게 눈동자나 눈꺼풀, 눈썹을 그려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은근하고 정겹다. 법정 스님도 말씀했다. "아름다움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은 그 그림 격을 좌우합니다. 덜 채워진 부분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합니다."

- 입고출신

24살 때 연경으로 건너가 첩학帖學과 금석 대가인 옹방강 서법을 따르던 추사는 서법 원류를 거슬러 당에서 남북조 다시 위진에서 한예漢隸에 이르고, 예隸 뿌리가 전篆이라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침내 추사는 예隸를 쓰기 시작했고, 동한東漢 예서가 파임과 비짐으로 외형미가 두드러진데 아쉬워하며 다시 서한예西漢隸에서 본령을 찾으려고 애쓴다. 추사는 그 과정을 이렇게 풀어놓는다. "내 팔뚝엔 308개나 되는 중국 명비문이 들어 있다."고. '입어유법入於有法' 추사는 이렇게 기본, 틀을 익혔다. 고전으로 들어가 기초를 다진 추사는 타고난 기량에 집념어린 열정으로 자신을 불살라 '출어무법出於無法' 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예서 그쳤다면 '단군 이래 으뜸가는 예술가는 그래도 추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제주도로 귀향 간 추사는 늘 주장하던 청고고아淸古高雅한 서법에서 벗어나 "내 70평생에 벼루 열 개를 구멍을 냈고 내가 써서 몽당붓이 된 붓이 천 자루는 된다."고 외칠 만큼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써오던 글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또 쓴 끝에 기굴분방奇?奔放, 자유로워졌다. '아용아법娥用娥法'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착主着. 그 경지를 추사는 스스로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는 '불계공졸不計工拙'이라고 했다.

"추사가 조선 역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세계인데. 그걸 다 훑었어요. 하지 말라는 불교공부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대성된 거예요. 아까, 입고출신? 그래 이걸 해야 해요. 지금 불교미술이 入古는 생각하는 데 出新이 안 되는 거야. 그거하려면 세계미술사를 다 봐야 해요.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중국, 인도까지 두루 훑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서양현대미술도 봐야 해요. 가슴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죠. 목적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지난 얘기만 자꾸 되풀이해서 되겠어요? 현대미술을 다 꿰뚫은 불상이 나와야 해요. 김수환 추기경은 자유로워요. 재미나는 게 여러 해전 성균관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성균관 선생님 묘소 참배를 하러 가야했어요. 모든 눈길이 김추기경에게 쏠렸어요. 추기경이 절을 할 것인가? 조마조마해했어요. 그런데 이 어른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절을 다 하시냐는 물음에 추기경은 '내가 존경하는 큰 선생님한테 절하는데 뭐가 어떠냐?' 면서 되레 의아해 했어요. 법정 스님 법회에 가보면 말이 아주 편하게 들려요. 서양 철학을 비롯한 책을 많이 읽어서 사물이치를 두루 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운 말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신부님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장난삼아 '신부님들 좀 설교를 조선말로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부님이 '왜 조선말로 하는데 그러냐?' 더라고. 그 말끝에 저쪽에 앉아있는 양반이 빙긋 웃던데, 그 양반, 알아들은 거여." 이 어른, '지금 여기'에서 새 길을 열라는 말씀이다. 入古出新.

- 아시아 빛!

1971년 이곳저곳 세계 미술들을 두루 돌아보면서 반가사유상과 석굴암 부처님생각이 간절했던 최종태 선생. 돌아오자마자 반가사유상을 보러 국립박물관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리곤 다음날 석굴암으로 날다시피 내려갔다. "표 받는 스님이 어떤 서양 사람이 표를 사가지고 네 번을 다시 오더래. 또 한 번은 어떤 서양 사람이 나오면서 '내가 분명 모자를 쓴 채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모자가 손에 들려 있으니 무슨 조화냐?' 고 묻더래요. 조각 앞에서 저도 모르게 모자를 벗다니. 그게 뭐냐 이거에요." 백제, 신라 사람들 불법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유명한 금관도 만들지 않고 크게 짓던 고분도 자그맣게 줄이고 오로지 부처님을 위한 사리탑과 사리함,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불국토 조성에만 열을 올렸다. 그 공력, 그 정성이 천년 세월을 뛰어 넘어 서양에서 온 나그네 발걸음을 묶어두고 모자까지 벗겼으리라.

석굴암 불상, 반가사유상, 일본 호류지에 있는 백제관음은 처음부터 중국이나 인도 불상과는 다르게 독특한 우리 빛깔을 드러냈다. 그랬기에 삼국시대 불상과 고려불화는 지금 세계미술사에 우뚝 서게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로마에서 우연히 어떤 책에서 봤는데 석굴암 불상이 '아시아 빛이다.' 고 나와 있더래요. 참. 누가 잘 쓴 거야. 아시아 빛!" 신라, 백제가 한국다운 불상을 그려냈잖아요. 당나라, 인도, 파키스탄 불상을 다 보고 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오늘날에는 서양미술을 다 봤잖아요. 그 속에서 나와야 해요." 관음상이 다 깎여진 뒤 법정 스님과 류시화 시인이 관음상을 처음 만나러갔을 때 관음상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서있었다. 그 불상을 본 법정 스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하

가족의 건강지킴이! '휘나핫 반신욕기'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피가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 02-875-0600
www.hwinahot.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